



나비 효과

| 이퀄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경희<나라은행 대리, 청렴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압박으로 점점 청렴에 대해 고민한다.>

혜연<나라은행 과장. 청렴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불의에 맞서고자 하지만 두려움도 공존하는 인물.>

정민<나라은행 대리,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인물.>

시놉시스

티 없이 맑은 날, 경희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는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주고 간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그저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편지가 잊혀 갈 무렵,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경희는 우연한 계기로 고객에게 관습적으로 씌웠던 돈을 받아 온 회사 내부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신은 거부하려 하지만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는 부장의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낀다.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 안쪽에는 커다란 거울.
 금이 갔지만, 소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꾸지 않던 거울의 모습과 은행 내부의 모습이 닮아있다.
 "왜 거울이 깨졌는데 바꾸지 않아요?"
 "뭐... 귀찮기도 하고... 얼굴만 잘 보이면 되잖아?"
 그런 질문과 대답이 몇 번 반복되니, 경희는 언제부터 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는 자신과 함께 회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좋지 않게 보던 동료 사직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히 동료의 자리에서 자신이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받은 편지를 보게 된다.
 '저도 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가득 채운 낙서 같은 글씨, 이 은행에 그런 멋진 어른이 어디 있다고. 그런 관습 하나도 깨지 못하는 어른밖에 없는데. 경희는 편지를 다시 보며 자신이 원래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떠올린다.
 다음 날 소란스러운 회사. 누군가가 은행 직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경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동료 직원의 사직을 막으며 같이 싸울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회사에는 새로운 거울이 들어온다.
 "무슨 거울이에요? 갑자기..."
 "아, 어제 보니까 거울이 깨져 있더라고. 완전히."
 아주 작은 행동이, 주변의 모든 것을 바르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작은 아이의 편지가 경희의 삶에 나비처럼 날아와 지금도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01. 은행 안 (낮, 맑은 날씨)

한 아이가 은행 유리문 밖에서 안을 몰래 보고 있다. 아이는 은행원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숨었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가 반복한다. 그러자 은행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앞으로 간다.

경희 : (문을 열어주며) 혹시 더워서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럼 들어와서 쉬고 가도 괜찮아~

아이 : (뒷짐을 지고 망설이며) 아니요...(도망을 간다)

경희 :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애네...

다시 자리로 돌아가 바쁘게 일하는 경희. 잠시 일거리를 가지러 간 사이에 편지가 한 통 놓여있다. 꽃과 나비가 그려진 작은 편지. 편지의 안에는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글씨가 적혀있다.

'저도 꼭 언니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엔 힘주어 적은 듯한 글씨가 적혀있다. 경희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는다. 아까 아이가 서 있던 문밖을 바라본다.

혜연 : (경희의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경희씨, 그거 뭐야? 아까 어떤 꼬마가 후다닥 뛰어오더니, 경희씨 자리에 두고 갔어, 아는 애야?

경희 : (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까 저 쪽에서 기웃거리더니... 이 편지를 주려고 그랬나 봐요.

혜연 : (부러워하며) 경희 씨는 좋겠다~ 편지도 받고

경희 : (편지를 접으며) 요즘 방학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방학숙제 같은 거겠죠.

혜연 : (아리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근데 저 꼬마, 분명 어디서 봤는데.

경희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상사 : (목소리만 들린다) 경희씨, 이쪽으로 좀 와봐.

경희 : (급하게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02. 식당 (점심시간, 맑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경희와 혜연. 문득 밥을 먹다가 경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혜연.

혜연 : 경희씨는 어렸을 때, 동경하던 사람이 있었어?

경희 : 갑자기 그건 왜요?

혜연 : 아까, 경희씨한테 편지 주고 간 애 있잖아. 나 기억났어.

경희 : 누군데요?

혜연 : 길에서 500원 주웠다고, 경희씨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왔었잖아. 며칠 전에.

경희 : (생각났다는 듯) 아.

혜연 : 생각났어? 경희씨가 그거 보고, 지갑에서 1,000원 더 꺼내서 주면서, 정직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했잖아.

경희 :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며) 생각해보니 그랬네요. (조금 생각하다가 무심하게) 그때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거든요. 마침 사라 가는 길이기도 했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런 걸 잘도 기억하시네요.

혜연 : 그때 그 아이 눈빛이. 내가 경희씨 면접 볼 때 눈빛이랑 똑같았거든.

경희 : 아니 자기 눈빛을 어떻게 알아요.

혜연 : 일단 들어봐. 맑고 깨끗한 보석을 본 눈빛이야.

경희 :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며) 오... 쫘 감동인데요?

혜연 : (경희를 보다가 다시 획 하고 밥을 먹으며) 근데 지금은 아니야.

경희 : (숟가락을 놓으며) 네? 왜요. 왜요~~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

#03. 은행 안 (낮, 비가 내림)

유리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경희는 혜연과 커피를 마시며 휴게실 앉아있다.

혜연 : (커피를 마시며) 경희 씨, 이번에 승진한다면서? 축하해~

경희 : (웃으며) 네.

혜연 : 이제 좀 쉬면서 일하고 그래, 부하직원도 많이 생겼겠다. 시키면서 쉬엄쉬엄 일하면 좋잖아.

경희 : 저 그런 성격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바른 자를 잡으며) 적당히 할 거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를 풀며) 기억 안 나세요? (웃는다)

혜연 :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알지.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속았잖아...

경희 : (놀라며) 흑시...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요?

혜연 : (머리를 잡으며) 안 하는 일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료를 챙겨가며, 경희를 보며 웃는다) 아주 사람 뽑은 보람 있게 만든 다니까, 이따 점심 때 봐~

떠나는 혜연의 뒤로 과거에 면접 봤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는 경희.

#04. 회상_회의실 (낮)

회의실에서 책상을 사이로 면접관과 경희가 앉아있다. 경희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경희 : 저는 일을 적당히 하라고 하신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노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 : (종이에 체크하다가 경희를 보며) 만약, 고객들이 청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 사람의 작은 부탁을 적당히 (강조한다) 들어주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면?

경희 : (당찬 목소리로 망설임 없이) 먼저 법에 대한 부분을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린 다음 정중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면접관 : 회사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경희 : 네!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언가 고민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면접관과 마음에 든다는 표정을 짓는 혜연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희의 얼굴.

#05. 회의실 (밤)

무표정의 경희의 얼굴과 앞의 장면에서 당당한 표정이 오버랩 된다. 부장이 경희를 혼내고 있다.

부장 : (화를 내며) 김 대리, 지금 우리 은행이 박 사장이랑 거래한 지 몇 년인지 알아? 십 오 년이라고!! 근데 그런 박 사장을 그냥 돌려보내? 너 미쳤어?

경희 :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부장 : 이번에 우리 지점 실적은 경희씨가 다 맡아먹을 거야?

경희 :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경희와 경희를 혼내는 부장의 모습. 혼내는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06. 탕비실 (낮)

거울 모서리 클로즈업. 흠집이 나 있다. 거울에 비친 경희의 모습이 보인다.
모서리를 보고 있는 경희.

경희 : (거울의 모서리를 바라보며) 거울 모서리가 깨졌네요.

정민 : (커피를 마시며) 아, 그거 예전부터 깨져 있었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봤구나.

경희 : 근데 왜 안 바꾸나요? 깨진 거울을 쓰면 위험하잖아요.

정민 : (거울 쪽으로 다가온다. 거울의 깨진 부분을 살펴봄)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티도 하나도 안 나.

경희는 불안하다는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본다.

정민 : (커피를 돌리며) 그나저나 경희씨, 그거 그냥 받아요.

경희 : (거울에 비친 동료의 모습을 본다) 네?

정민 : 아까 오전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박 사장님이 주고 간 거.

경희 :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

정민 :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같은 거예요. 청탁 뭐 그런 심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조금씩 모아서 용돈벌이하는 거지 뭐.

경희 : (망설이며) 요즘 그런 거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민 : (별생각 없다는 듯이) 근데 옛날부터 다 그래왔다고 하잖아. 박 사장님도 요즘 힘들어하는 거 우리 은행사람들 다 알아요. 거래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경희의 눈치를 살핀다) 그거 하나하나 잡겠다고 하는 품이 더 들지. 그냥 쌈짓돈이야 뭐. 서로서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경희 :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정민 : (경희의 등을 밀며) 아, 근무시간 다 지나겠네, 그만 갑시다.

경희는 얼떨결에 정민의 손에 떠밀려 나간다. 경희의 뒤로 구석이 깨진 거울이 경희와 정민의 모습을 비춘다.

#07. 탕비실 (밤)

거울에 비친 조명이 거의 수명을 다해 깜박거린다.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경희.

경희 : (억울하다는 듯이) 부장님은 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넘어가시는 걸까요?

혜연 : 글썄... 저 박 사장님이 부장님이 데려온 고객이라 그러려나?

경희 : 네? 정말요?

혜연 : (피식 웃으며) 경희씨, 거짓말 같은 거 잘 못 치지.

경희 : 아... (고민한다) 뭐 그래도 어렸을 때 학원 안 갔는데, 갔다고 정도는 쳐봤죠... 결국 끝까지 거짓말을 못해서 더 크게 혼만 나고 끝났지만요...

혜연 : (작게 웃으며) 그럼 경희씨도 알겠다.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경희씨가 어렸을 때도 아마 그냥 조금 놀고 온 거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이려고 하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들켰던 거지.

경희 :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혜연 : 그런데, 누군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경희 : 성이요?

혜연 : 응

혜연은 커피를 마시며 열린 문 사이로 작게 보이는 부장의 모습을 지켜본다.

부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다.

혜연 : (부장을 바라보며) '관습'이라면서 말이야.

혜연은 다 마신 종이컵을 구긴다. 마음이 무거운 듯 자리에서 일어서는 혜연.

경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08. 탕비실 (밤, 비)

앞의 장면에서 이어 거울 안으로 경희가 들어온다.

경희 : (거울 구석의 금이 간 부분을 조금 세게 누른다) Na. 정말 작은 금은 괜찮은 걸까... (따끔한 느낌 때문에 손을 떼다) 아! 아... 베었네, (피가 흐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며) 약이 남았던가.

다친 손을 잡고 탕비실을 나오는 경희. 경희를 뒤로 거울에 금이 조금 더 갈라진다.

#09. 은행 안 (밤, 비)

경희는 다친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물함을 뒤진다. 자신의 사물함을 뒤지다가 문득 혜연의 자리에서 약을 바른던 기억을 떠올린다.

경희 : (약을 집으며) 찾았다! (약의 옆에 있는 종이를 발견한다) 어?

혜연의 사직서다. 요 며칠 동안 표정이 좋지 않았던 혜연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 다짐한 듯한 혜연의 모습을 떠올린다.

경희는 사직서를 집으며 마음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밝게 대답하는 경희의 목소리에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면접관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신입으로 들어와 바쁘게 일하는 모습.

처음 승진했을 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경희는 혜연의 서랍에서 꽃 그림의 편지봉투를 발견한다.

경희 : (편지를 집으며) 잠깐 보고 준다더니,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편지에는 여전히 낙서 같은 글씨로 '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다. 편지를 읽던 경희는 탕비실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10. 회사 안 (낮, 비 갠 맑은 하늘)

회사 안이 소란스럽다. 누군가 내부에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각자 모여서 수군거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경희는 무심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택배 기사가 커다란 거울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온다.

택배기사 : (문을 반쯤 열고) 거울 배달 왔는데요. 어디에 두면 될까요?

직원1 : (택배기사에게 안내하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직원2 : (직원1에게) 무슨 거울이에요?

직원1 : (택배기사의 짐을 같이 들어주며) 아, 어제 보니까. 거울이 깨져있더라고. 작은 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참에 바꾸고 좋잖아.

경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열게 웃는다.

혜연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런 혜연의 뒤로 경희가 조용히 다가온다.

경희 : (사직서를 찾는 혜연을 보며) 뭐 찾으세요?

혜연 : (당황하며)어? 아니...

경희 : (사직서를 보여주며)이거 찾으세요?

혜연 : (사직서를 뺏으며) 이걸 경희씨가 왜...

경희 : (웃으며) 과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만두지 마세요...(표정이 풀어지며) 과장님 없으면 저 누 구랑 놀아요.

혜연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경희의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 웃는다.

혜연 : 경희씨,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경희 : 갑자기 아이스크림은 왜요?

혜연 : 정직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야.

#11. 은행 안 (낮, 맑음)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경희와 혜연의 모습이 내레이션과 함께 지나간다.

경희 : Na. 우리는 사실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결과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작은 금이 저 커다란 거울 전체를 깰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만 한 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경희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꽃아 둔 편지 봉투를 보고 웃는다.

경희 : Na.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전부의 삶을 바르게 지탱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해서 작고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항상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진다.

택배기사 : (거울 설치를 끝내며) 아이고, 무거웠네요. 거울 설치 다 됐습니다.

경희는 새로 설치된 거울 앞에 다가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이다.

경희 : Na. 그 작은 아이의 편지가 나의 삶에 나비처럼 날아와 지금도 나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하던 경희의 옆으로 혜연이 다가온다.

혜연 : (거울을 보며) 부장 상대할 생각하니 긴장이 되네... 경희씨는 긴장 안 돼?

경희 : (편지를 보여주며) 저는 부적이 있거든요.

편지 속 나비가 편지 밖으로 나와 은행을 날아다니다가, 열려 있는 문 밖으로 나간다. 화면이 하늘로 연결되며, 한 가정집을 비춘다.

#12. 집 안, 낮

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편지를 적는다. 작은 손이 여러 가지 색의 볼펜을 바꿔가며 그림인지 글씨인지 모를 내용을 적었는데 몇 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잠이 든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바람이 불고, 얼음을 담은 유리컵이 햇살을 왜곡시켜 아이의 눈가에 안경을 씌운다. 아이는 자신이 잠이 든 줄도 모르고 눈썹 사이를 찌푸렸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손가락을 움짚거린다.

아이의 손 주위로 ‘대단하고 멋져요’라고 쓰인 종이 클로즈업

아이의 아빠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 : (작은 목소리로) 우리 딸 잠들었네... 근데 뭐가 대단하고 멋지다는 거야? 여보, 뭐 쓰고 있었는지 알아?

엄마 : (작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방학 숙제로 무슨 편지를 쓴다나 봐. 존경하는 인물한테 직접 편지 전해주기 숙제인데, 저번에 은행 따라갔을 때 봤던 은행원이 꽤 멋있었나 보더라고, 은행원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네.

아빠 : 친구들은 경찰관이나 소방관한테 쓴다고 할 텐데, (웃으며) 역시 우리 딸은 취향이 확고해.

엄마 : (남편을 보며 웃는다) 우리 딸이 멋지다고 하면, 그게 제일 멋진 사람이지 뭐야.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아이의 얼굴. 무슨 꿈을 꾸는지 웃고 있는 모습이다.

<끝>